

쪼개지는 국민의당, 광주·전남 '격랑'



25일 오후 목포시 목포해양대학교 대강당에서 민주평화당 창당 전남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참석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창당 2년만에 들로 쪼개지면서 광주·전남 지역 정가와 선거지형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사실상 양강 체제에서 무소속을 포함해 3~4강 체제로 재편될 지, 범보수 진영의 세(勢) 확산에 맞선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모종의 딜이나 정책적 연대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광주·전남 지역 정가에 따르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기를 든 통합진보당은 전남 신당 당명을 고(故) 김대중(DK) 전 대통령이 이끈 평화민주당(평민당)과 유사한 '민주평화당(민평당)'으로 정한데 이어 25일 목포해양대에서 개혁신당 창당 전남 결의대회를 갖고 세 규합에 나섰다.

이어 26일 당 상징색 등 발표, 28일 창당 발기인대회 및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구성, 2월 5~6일 시·도당 창당대회, 2월6일 서울시당·중앙당 창당대회를 차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창당 발기인과

민주당-국민의당 양강→3~4강, 빅 매치 예상 중재파 진로·원내1당 다툼·무소속 등 변수 '호남 텃밭' 민주-국민, 연대-통합 초미 관심

당원 확보 창당 자금 마련, 지도체제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통합파인 가칭 '통합개혁신당'도 앞서 지난 23일 광주를 찾아 통합의 당위성을 알리며 민심을 공략하는 등 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남 바른정당 1주년 기념식에 축하화환을 보내는 등 양당의 결속을 한층 강화했다.

창당 2년 만에 국민의당이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한 신당과 탈(脫) 호남 동진형 개혁신당으로 쪼개지면서 '포스트 국민의당'이 6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장의 경우 민주당 7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민중당 후보까지 10명 안팎의 후보군이 링 위에 오른 가운데 정당별로는 국민의당의 정치적 분화로 민주당, 민평당, 통합개혁신당, 정의당, 민중당, 무소속 후보로 선거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광주지역 8명의 국회의원 중 장병안·전정배·김경진·최경환 의원 등 4명은 통합진보파, 송기석·권은희 의원은 통합파, 박주선·김동철 의원은 중재파로 분류되고 있다.

세 갈래로 삼분할됐 있으나 안철수 대표의 조기 퇴진을 요구하는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중

재파 의원들의 민평당 행이 유력하다는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어서 현 재로선 새관짜기를 예단할 순 없는 상황이다.

전남에서도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통합파와 반대파 중재파로 나뉘는 가운데 전남지사 선거전인 경우 민주당 이기호 의원과 노관규 전 순천시장, 민평당 박지연 의원, 통합개혁신당 주승용 의원 간 3자 대결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민주당 경선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빅 매치를 예고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과 광역단체장 선거가 요동치면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소속 상당수 기초단체장 예비 주자들은 통합 반대론에 동조하고 있지만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 당세에 맞서 신당이 나올지, 무소속이 나올지 등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분당 후 중도와 국회의원들의 거취도 해당 지역 예비후보자들의 선택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 지형이 급변하면서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에 도전할 뜻을 비쳤던 지방의원들의 이른바 'U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원내 1당을 놓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그랜드프랜을 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호남에 뿌리를 둔 민주당이 호남을 준립기반으로 한 국민의당과 어떤 식으로든 손을 잡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선거연대로 이어질 지, 통합 카드를 꺼내들 지 조미의 관심이 쏠리고 이에 따른 선거판 변화도 예상된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어느 누구도 6월 지방선거의 정당 대결 구도나 연합공천, 전략 공천 여부를 예측하기 힘들다"며 "한 치 앞도 설계하기 힘든, 그야말로 '시계 재로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동구, 치매안심마을 도란도란 마음나눔 동행

광주·전남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안심마을 시범사업'에 선정된 동구가 치매환자 및 가족이 고립되지 않고 꾸준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도란도란 마음나눔 동행' 사업을 시작해 눈길을 모은다.

동구는 치매안심마을 시범사업 선정으로 사업비 6천만 원을 확보하고 ▲치매인식을 개선하는 '치매 바로알기!'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는 '치매와 친해지기!' ▲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인 '치매아 놀자!' ▲치매 환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치매정복! 동행하기!'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서구, 마을버스 운행 재개...신규노선도 개통

광주 서구가 지난해 8월부터 운행이 중단됐던 760번 마을버스 운영을 오는 28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760번 버스의 1일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2시 15분까지이며 평일에는 15분 간격으로 64회, 휴일에는 21분 간격으로 46회를 7대의 차량이 운행하게 된다.

또한, 이번 운행재개에 맞춰 763번 노선이 새롭게 개통된다. 신규 노선은 풍암동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을 기점으로 영주사거리, 화정사거리, 발산을 경유하여 중점인 광천터미널에서 다시 순환한다.

총 8.4km의 노선을 마을버스 4대가 평일에는 20분 간격으로 49회, 휴일에는 30분 간격으로 33회를 운행한다.

남구, 청년정책 100인 위원회 본격 활동

광주 남구는 25일 "청년문제에 대한 현실과 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들이 당당하게 정책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청년정책 위원 110명을 선출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청년정책 100인 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7시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청년주도형 청년정책 실현을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110명의 청년 위원들이 청년 네트워크 조직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초청 강연이 펼쳐진다.

강보배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우리가 만드는 변화"이라는 주제로 강단에 올라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청년정책 100인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북구,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광주 북구가 설 명절을 맞아 주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민생활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본격 운영한다.

25일 북구에 따르면 내달 18일까지 ▲귀성 성묘객 교통대책 ▲지역물가 안정 및 체불임금 청산 ▲재해재난 안전사고 대책 ▲비상진료 대책 ▲연료 수급과 가스 안전 관리대책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제증명 민원발급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9개 분야의 종합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북구는 설 연휴기간(2월 15일~18일) 동안 ▲교통 ▲재난 ▲의료 ▲청소 ▲민원 등 8개 대책반 187명을 특별 편성, 주민생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연휴기간 아끼되는 주민 불편사항을 바로바로 해소할 방침이다.

광산구 신설 30주년 기념행사 30일 개최

광산구 신설 30주년을 기념하고, 자치분권으로 미래 30년을 준비하는 행사가 오는 30일 오후 2시 광주여대 시험유니버시티드체육관에서 열린다.

광산구에 따르면 행사는 지방분권 개헌 광산회의(이하 '광산회의') 출범식, 광산구 신설 30주년 기념식 순으로 진행된다. 광산구 신설 30주년 기념식은 시민과 함께 하는 축하마당이다. 전 분야에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한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미래 30년을 정의롭고 풍요롭게 만들자는 의지를 담아 참가자들과 각종 퍼포먼스를 연출한다.

임형택 기자

서동욱 도의원 '한국철도공사 지역 인재 채용 확대' 촉구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민주당·순천3)이 대표 발의한 '한국철도공사 지역인재 우선 채용 촉구 건의안'이 25일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서동욱 의원은 건의안에서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의 경우 최근

5년간 채용된 91명 중 64명인 70.3%가 타 지역 출신자이다"면서 "작은 진출로 인해 결원이 생기고 이는 업무공백으로 이어져 철도 안전에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

되어 있는 철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의 직원 채용 시 전남분부와 같이 진출자가 많은 지역은 거주지 제한방식을 도입해 그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동욱 의원은 "30년 안에 전국 시·군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84곳, 1,383개 읍·면·동이 지방소멸 지역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다"며 "이러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의 지역 내 취업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것이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해남·나주·목포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전문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임대상속중여
- 기업진단
- 기장대리
- 건설면허신청
-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융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설계 >> 도시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